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 제 몸을 태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0월 1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5호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논란된 '해제비' 세금 부과 안한다

기재부, 11월 28일 종교인 과세 보완방안 발표

종교특성 일부 반영해
종무회의 · 수행지원비 등
종교활동비 비과세 결정

상시고용인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특례도 허용
조계종, 일괄 납부 검토
"소임자 한해 과세 판단"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을 위해 받은 '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11월 28일 △과세대상 범위 조정 △과세대상 종교단체 범위 확대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 제고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화 등을 골자로 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 ·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를 뜻한다. 불교는 종무회의서 의결한 것과 승려에 지급하는 수행지원비(안거해제비 · 기도비 등)가 포함된다. 아울러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종단에서 임명하는 교역직 종무원과 사찰주지, 각 사찰서 보시를 받는 7직 등 일부 소임자들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간 조계종은 보시 · 법사비 · 수행비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기재부 입장에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해왔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결정은 이 같은 종교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교단체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를 위해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했다. 원천징수세액에 따르면 연간지급액 2000만원 이하는 1인가구 1000원, 2인가구 0원, 4인가구 0원이다. 4000만원 이하는 1인가구 8만3830원, 2인가구 6만1130원, 4인가구 1220원이며, 5000만원 이하는 1인가구 16만3230원, 2인가구 14만730원, 4인가구 5만730원으로 책정됐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세액

연간지급액	원천징수세액(원)		
	1인가구	2인가구	4인가구
2천만원	1,000	0	0
4천만원	83,830	61,130	1,220
5천만원	163,230	140,730	50,730

이외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기별 납부 특례를 종교단체에 한해 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현재 조계종은 소임자들에 대한 세금 일괄납부를 검토하고 있다.

종교탄압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했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 · 관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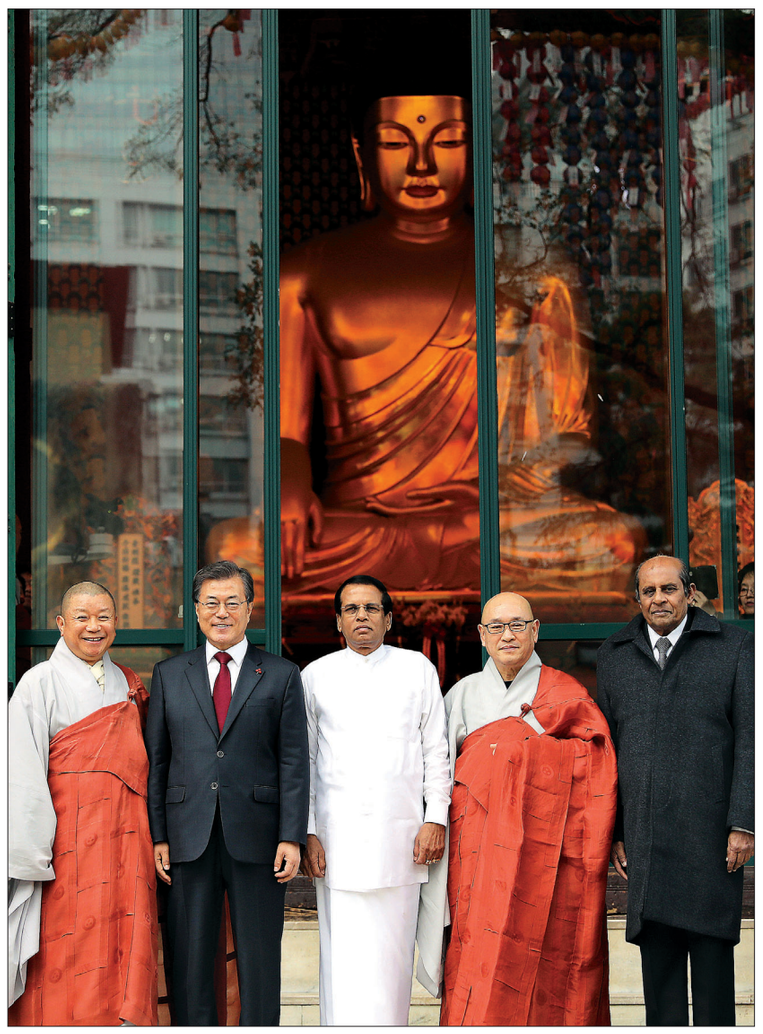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 · 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기타 보완방안으로는 제도 운영상황 점검, 납세절차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국세청이 한시적으로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납세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395명을 운용하고, 종교인 전용 신고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종교인 전자납부 시스템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구 조계종 기획차장은 11월 28일 브리핑서 "다 만족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종단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납세평등주의에 최대한 부응하고, 스님들이 혼란 없이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종단차원서 연구 중"이라며 "종단 시행방안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당국도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 입법예고한 뒤 부처 협의 · 종교계 간담회 ·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한 ·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28일 국빈 방한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문재인 대통령,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사진=노덕현 기자**

文대통령, 조계종 '깜짝' 방문 이유는

韓-스리랑카 수교 40주년 맞아
방한 시리세나 대통령 환대위해
조계사 참배 · 설정 스님과 환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를 깜짝 방문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종교계 방문이자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 최초로 조계종을 예방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8일 한 ·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맞아 방한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환대를 위해 조계사를 찾았다.

조계사는 스리랑카와 인연이 깊은 사찰로서, 돌탑에 1913년 스리랑카 고승 다르마 팔라가 전해준 부처님 진신사리 1과가 봉안돼 있으며, 경내에 2015년 시리세나 대통령이 직접 기증한 마하보리수 묘목도 자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조계사에 먼저 도착해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진각 스님과 함께 시리세나 대통령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과 시리세나 대통령 등은 인사를 나누며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부처님전에 예를 올린 뒤 밖으로 나와 잠시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양국 정상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서 문 대통령은 "설정 스님은 조계종 내에서 법력과 신망이 높은 스님이시다. 지난 1일에 취임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축하인사를 드리고, 한국불교와 스리랑카불교 간에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뵙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시리세나 대통령은 "한국과 스리랑카 외교관계 수립 40년이 됐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교로 연결된 것은 1000년이 넘는다. 문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고, 유서 깊은 사찰에 저를 보러 와주신 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설정 스님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이 양국의 우의 증진을 비롯해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신임 원로의장에 세민 스님 선출

원로회의, 11월 27일 회의서
부의장엔 대원 · 원경 스님



조계종 제9대 원로의장에 세민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수석부의장에는 대원 스님이, 차석부의장에는 원경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하)는 11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57차 회의를 열고, 투표 후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의했다.

세민 스님은 회의 직후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신임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과 1966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과 일본 경도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동국대 선학과 강사, 조계사 · 경국사 · 선암사 주지,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이사, 삼성암 주지를 맡고 있다.

수석부의장 대원 스님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8년 남장사와 1962년 해인사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을 맡고 있다.

차석부의장 원경 스님은 송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용화사서 전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하고, 제10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흥왕사 · 청룡사 · 신륵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만기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현재 원로의장 종하 스님과 부의장 암도 · 세민 스님 임기는 12월 10일까지며, 회의서 선출된 신임 의장단은 11일부터 5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175호 INDEX

시방세계 A5
뮤지컬 '주어사' 공연 현장



신행 · 포교 A6
종로노인복지관 10주년 기념식



학술 · 문화재 A9
新포교 개념 '담마테인먼트'

